



즉시 배포용: 2022년 9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허리케인 피오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은행 지침 발표

은행에 현금 자동 인출기 수수료 면제, 송금 신속화, 연체 수수료 면제 등 허리케인 피오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피오나의 여파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참여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ATM 수수료 및 연체료 면제와 ATM 인출 한도 확대, 자금 이체 조장 및 촉진 등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상공인들을 돕는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뉴욕주 면허 은행들에게 촉구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푸에르토리코의 가족과 친구들을 지원하려는 많은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뉴욕 은행 계좌를 가진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피오나가 초래한 파괴로부터 재건되면서, 푸에르토리코는 뉴욕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광범위한 자원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푸에르토리코 섬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며, 오늘 발표된 조치들은 그들이 회복의 길을 가는 것을 돕기 위해 뉴욕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Adrienne A. Harris**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취한 조치는 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들이 이 파괴적인 자연 재해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은행 지침에서 금융 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 **Harris** 감독관은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취하도록 독려했습니다.

- ATM 수수료 면제
- 초과 인출 수수료 면제
- 다른 주 및 비고객 수표 현금화 제한 완화
- 신규 대출 신용 조건 완화
- 신용도가 양호한 고객의 신용카드 한도 증액
- 신용카드 및 기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료 면제
- 재해 관련 차질로 인한 체납 및 신용 기록 악화를 피할 수 있도록 대출 고객에게 일부 결제를 연기 또는 거를 수 있도록 하거나 결제일을 연장하는 등의 결제 조정 편의 제공
- 여러 환전/송금업체들과 협력하여 송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허리케인 피오나 피해민들이 신속히 현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은행 지침서의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뉴욕은 푸에르토리코가 FEMA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확보하여 섬의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NYPA는 섬의 발전소 및 변전소에 대한 기술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섬을 강타한 최악의 폭풍인 허리케인 피오나의 여파로 Hochul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푸에르토리코의 재건과 회복을 돕겠다는 뉴욕의 오랜 헌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